

양현종 잡고 외국인 물색...KIA 선수단 구성 속도낸다

양현종과 FA 계약 협상 중 외국인 타자 중견수 물색 멩덴·다카하시 동행 미지수 최원준만 상무 합격 아쉬움

감독 선임을 끝낸 '호랑이 군단'이 선수단 구성에 속도를 낸다.

KIA 타이거즈는 올 시즌이 끝난 뒤 대표·단장·감독을 모두 교체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장정석 단장에 이어 지난 5일 김종국 감독까지 빈자리가 채워지면서 KIA의 2022시즌 준비에도 속도가 붙었다.

이번 스토브리그 최대 관심사이자 2022시즌 중요한 두 퍼즐은 양현종 그리고 외국인 선수다.

일단 감독 공석 상황에서도 양현종의 FA 협상은 조용히 진행돼왔다.

새로 구단을 이끌게 된 장정석 단장은 양현종과 식사자리를 갖기도 했다. 서로의 조건도 주고받는 등 지금까지 움직임은 순조롭다.

관건은 '상징성'과 '현실'의 격차가 될 전망이다. 양현종은 2007년 입단해 지난 시즌까지 선발로 14시즌을 뛰면서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뛰어왔다. 팀을 상징하는 선수이고, 노련함이라는 큰 자산을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올 시즌 아쉬운 성적, 내년 시즌 35살이라는 나이 등 '현실적인' 부분이 남는다.

KIA는 양현종은 물론 다른 FA 자원들도 폭넓

게 살펴보면서 전력 보강 구상을 하고 있다.

외국인 선수 영입 작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KIA는 최근 보류선수 명단에서 프레스턴 터커의 이름을 제외하면서 작별을 공식화했다.

터커는 2020시즌 타이거즈 구단 역사상 첫 '30홈런-100타점-100득점'을 이뤘지만 지난 시즌 공-수에서 외국인 선수의 강점을 보여주지 못했다.

외국인 타자는 외야 자원으로 좁혀 살펴보고 있다. 김종국 신임감독이 특히 센터 라인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견수 자원이 우선 영입 대상이다.

다니엘 멩덴과 보다카하시를 보류선수로 묶어두기는 했지만, 내년 시즌 동행여부는 미지수다.

올 시즌 각각 안정감과 강렬함이 떨어졌기 때문에 KIA는 영입리스트에 있는 선수들을 우선 접촉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 규정에 묶여 일본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모양새라서 쉽지 않은 영입 작업이 될 전망이다.

7일 선수단 구성에 또 다른 변수도 등장했다.

이날 2022년 1차 국군대표(상무)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앞서 최원준(외야수), 김현수-이승재-장민기(이상 투수), 권혁경(포수), 박민(내야수) 등 6명이 1차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최종 명단에는 최원준 단 한 명 밖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KIA는 최소 2명 이상의 합격자를 기대했던 만큼 선수들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내년 봄 상무 추가 모집이 있는 만큼 일단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한 선수들은 시즌 준비를 하면서 입대 계획을 다시 세울 예정이다.

한편 상무 합격 통지서를 받은 최원준은 "폭 쉬면



KIA 타이거즈가 김종국 수석코치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하고 2022시즌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월 마우리캠프에서 김종국 감독의 펑고를 받는 KIA 내야수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서 지내고 있다. 합격해서 기쁘지만 같이 준비했던 동료들의 결과가 좋지 못해 아쉽다"며 "많은 걸 시도하고 배워서 오겠다. 더 성숙해져서 오겠다. 2023년 6월 전역을 하게 되는 만큼 바로 팀에 합류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배우고 오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번엔 GS칼텍스 벽 넘어서자”

AI페퍼스, 오늘 광주서 경기 지난 1·2라운드 1세트도 못이겨 모마 서브 막고 공격 다변화 시급

AI페퍼스가 아직 넘어서지 못한 벽, GS칼텍스를 뚫고 1세트를 가져올 수 있을까.

AI페퍼스가 8일 오후 7시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도드람 2021-2022 V리그 경기에서 GS칼텍스를 상대한다.

아직 AI페퍼스는 GS칼텍스를 상대로 단 1세트도 따낸 적이 없다. 지난 1, 2라운드 대결에서 AI페퍼스가 20점 이상을 획득한 세트조차 단 1번에 불과했다.

GS칼텍스는 지난 2020-2021 시즌에서 정규리그 1위,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차지한 강팀이다. 최근 파죽의 3연승을 이룬 GS칼텍스는 올 시즌 9승 4패로 승점 28점을 획득, 여자부 2위를 달리고 있다.

1라운드에서 '패기'로 선배 구단들의 허를 찔렀던 AI페퍼스지만, 어느 정도 전력 분석이 이뤄진 최근에는 플레이가 쉽게 읽히는 모양새다.

GS칼텍스의 무기는 득점 랭킹 2위를 달리고 있는 '카메론 국가대표' 모마(319득점)와 강소희, 유서연으로 구성된 '삼각편대'다. 이들은 각각 45.14%, 39.7%, 39.20%의 공격 성공률을 보이며 매 경기 두자릿수 이상 득점을 챙기고 있다.

이들에 맞서려면, 그간 꾸준히 지적받았던 서브 리시브, 단순한 공격 옵션 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모마의 목격하 서브는 AI페퍼스의 약한 서브 리시브를 특히 잘 공략했다. GS칼텍스는 AI페퍼스를 상대로 무려 10.20%의 서브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다. 서브 10번을 넣으면 1번은 서브에이스를 올린 셈이다. 2라운드에서는 한 세트에서만 서브에이스를 5번이나 허용하며 허무하게 한 세트를 내주기도 했다.

엘리자벳 일변도인 공격 방식도 GS칼텍스에겐 쉽게 읽혔다. GS칼텍스의 AI페퍼스 상대 블로킹 성공률은 22.37%로, 타 팀에 비해 두배에 가까운 수치다.

공격 옵션 다변화는 비단 GS칼텍스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속제이기도 하다.

AI페퍼스는 56.9%의 공격을 오픈 공격에 할애하고 있다. 높아지는 상대 블로킹 벽을 뚫으려면 킥 오픈과 속공, 이동공격 등 수비를 흔드는 공격 시도를 더 늘려야 한다.

최근 AI페퍼스는 이한비·박경현·박은서 등 원스 파이어 활용도를 높이고 있기도 하다.



AI페퍼스 선수들이 경기 중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KOVO 제공>

특히 신인 박은서는 지난 흥국생명전-기업은행전에서 주전으로 출전해 두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엘리자벳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어 활약이 기대된다.

AI페퍼스가 날아 성장은 모습으로 첨벙같은 GS칼텍스에겐서 1세트를 뺏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홍정호, 24년 만에 수비수 MVP

K리그1 2021 대상 시상식 전북현대 5연패 이끌어

전북현대의 5연패를 이끈 '캡틴' 홍정호가 24년 만에 수비수 MVP로 우뚝 섰다.

베테랑 수비수 홍정호는 7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홍정호는 각 구단 감독, 주장, 미디어 투표에서 합산점수 48.98점(감독·주장 6표, 미디어 56표)을 받아 제주 주민규(39.45점·감독 4표 주장 5표 미디어 50표)를 따돌렸다.

올 시즌 홍정호는 인터셉트 50회(2위), 획득 186회(4위), 클리어 85회(9위), 차단 100회(11위)를 기록하면서 수비 관련 데이터 부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37라운드 대구전에서 전북 우승 가능성을 높인 선제골도 장식하는 등 5연패 중심에 서며 1997년 김주성 이후 24년 만에 수비수 MVP를 이뤘다. 중앙수비수 출신 MVP는 홍정호가 6번째다.

전북은 우승에 이어 지난해 손준호(산동 루닝)에 이어 2년 연속 MVP 트로피를 차지했다. 또 이동국(2009·2011·2014·2015년), 이재성(마인츠·2017년)을 포함해 7번째 시즌 MVP라는 경 gesta를 누렸다.

홍정호는 또 2010·2019·2020시즌에 이어 통산 4번째, 3회 연속 베스트 11에도 선정됐다.

이번에도 준우승에 머문 울산현대는 설영우의 '영플레이어상' 수상으로 아쉬움을 달랠다.

설영우는 합산 점수 42.29점으로 정상빈(수원·

26.27점), 엄원상(광주·17.92점), 고영준(포항·13.52점)을 제치고 올 시즌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만 23세 이하 선수로 등극했다.

지난해 K리그에 데뷔해 14경기에서 뛰었던 그는 올 시즌에는 31경기에 나와 데뷔골 포함 2골 3도움을 올렸다.

감독상은 5연패를 지휘한 전북 김상식 감독에게 돌아갔다.

김상식 감독은 데뷔 첫해 22승 10무 6패(승점 76)를 기록하면서 K리그 최초 5연패, 통산 9회 우승이라는 역사를 썼다.

그는 또 조광래 현 대구FC 사장, 최용수 강원FC 감독에 이어 선수, 코치, 감독으로 모두 우승을 이룬 세 번째 주인공도 됐다.

울산 수문장 조현우는 올 시즌에도 베스트 11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K리그2 시절인 2015·2016시즌 포함 7시즌 연속 골키퍼 부문 수상이다.

조현우는 올 시즌 단 한 번의 교체도 없이 울산이 치른 38경기를 모두 지키면서 성남 골키퍼 김영광과 '전 경기 전 시간' 출장도 이뤘다.

한편 홍정호를 비롯해 강상우(포항), 데이브 볼투이스(울산), 이기제(수원)가 수비수 부문 베스트 11로 선정됐다.

미드필더 부문 베스트 11에는 세정야(대구), 이동준·박코(이상 울산), 임상협(포항)이 이름을 올렸다.

22골로 '최다 득점상'을 받은 주민규는 득점 2위 라스(수원FC·18골)과 베스트 11 공격수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32경기에서 10골을 도운 김보경(전북)은 최다도움상을 수상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달에만 9경기 토트넘 어찌나

영국 풋볼런던 "선수·코치진 다수 코로나 양성"

손흥민의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영국 풋볼런던은 7일 "토트넘 선수와 코치진 다수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달에만 공식전 9경기를 치러야 하는 토트넘에는 비상이다.

토트넘은 이달 10일 렌(프랑스)과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 조별리그를 앞두고 있고, 12일에는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 17일에는 레스터 시티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를 치러야 한다.

20일에도 리버풀과 맞대결을 펼친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구단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풋볼런던은 "경기 연기에 대한 결정에 앞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이들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토트넘에서는 올해 10월에도 두 명의 선수가 검사 오류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당시 손흥민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언급되기도 했는데, 추가 분석 결과 두 명의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